

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, 전문직공무원 제도 첫 실시

- 통일부, 안전처, 금융위 등 6개 부처 직제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-

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이후 공직사회의 달라질 모습 〉

일반직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김○○ 전문관은 예전과 달리,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근무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. 본인이 희망했던 인재채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.

김 전문관은 “현재 공무원 시험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내년에는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”면서 “인재채용 분야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 경력개발계획(CDP)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설계할 수 있고,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졌다”고 만족해 하고 있다.

1. 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.

-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「6개 부처* 직제 개정안(대통령령)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*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, 통일부, 국민안전처, 인사혁신처, 금융위원회

2.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,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, 95*명이 시범 대상이다.

*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근무경력,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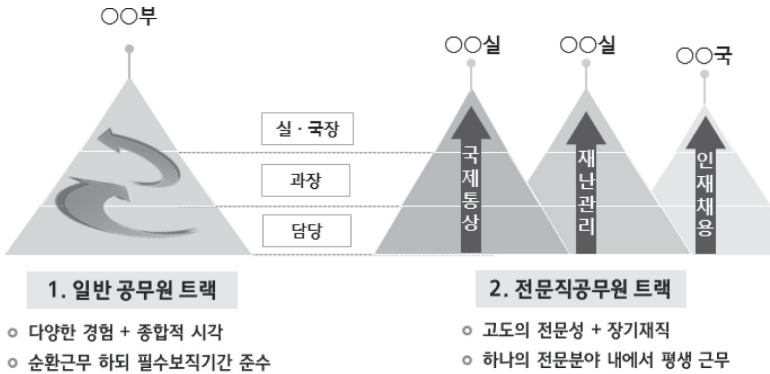
〈 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부처(전문분야) 및 선발인원 〉

구분	부처명	전문분야	선발인원
합계	6개 부처	6개 전문분야	95명
1	산업통상자원부	국제통상 분야	25명
2	환경부	환경보건 및 대기환경 분야	22명
3	통일부	남북회담 분야	8명

4	국민안전처	재난관리 분야	17명
5	인사혁신처	인재채용 분야	10명
6	금융위원회	금융업감독 분야	13명

- (1)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, 최고 전문가(名匠, Master)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,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며,
 (2) 재난, 통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,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관리 전문가, 통상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〈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의 트랙 비교 〉



3.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.

- (1)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별*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,
 * 전문직공무원 계급 :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
- (2) 전문역량,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, 정부부처 실·국장에 올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며, (3) 전문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, 국내·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, (4)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 직무급도 지급된다.

4. 인사혁신처는 2~3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,

- (1) 「전문직공무원 제도 세부 운영 매뉴얼」을 만들어, 이달 중 배포하고, (2) 시범 부처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, (3) 제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,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【 일반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비교 】

일반 공무원(행정·기술직)	구분	전문직공무원
· 5급→4급→3급(→고위공무원)	계 급	❖ 전문관→수석전문관(→고위공무원)
· 계급별·직급별 정원 배정	정 원	❖ 전문관·수석전문관 정원 통합관리
· 모든 분야로 자리이동 가능	전 보	❖ 전보가능범위 제한(전문분야 內)
· 상위직급 결원 및 심사	승 진	❖ 포인트방식 및 심사
· 근무성적평가(5급↓), 성과계약(4급↑)	평 가	❖ 전문역량평가제 ※ 전문역량 향상과 성과에 따라 승진
· 호봉제(6급↓), 연봉제(5급↑)	보 수	❖ 연봉제(‘전문직무급’ 신설)